

TV방송 다큐멘터리 선호도에 대한 수용자의 주관성 연구

Analysis of the Audience's Subjectivity about Preference of Documentaries on TV

현승훈

목원대학교 영화영상학부

Seung-Hoon Hyun(andedart@mokwon.ac.kr)

요약

본 연구는 TV 다큐멘터리 장르 선호도에 관한 수용자의 주관성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써 Q방법론(Q-methodology)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TV 다큐멘터리에 대해 수용자들의 다양한 선호유형별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유형별 특징은 먼저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오락적 가치 지향형, 공익과 교육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익, 사회적 가치 지향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의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 예술적 가치 지향형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선호유형의 구분을 통해 추론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와 다르게 수용자들의 TV방송 선택이 수동적이고 매체 의존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다매체, 다채널 디지털 방송의 시대에서 콘텐츠 유통과 생산에 대한 연구 개발의 초점은 콘텐츠 자체는 물론 수용자 욕구와 희망을 반영한 수용자 중심의 서비스개발 모델에 그 방향을 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다큐멘터리 | 수용자 | 주관성 | Q 방법론 |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subjectivity of audiences about preference of documentaries on TV. Accordingly, Q-methodology was used for this study. As a result, audiences' various characteristics by preference types were able to be fou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into three styles: an entertainment-oriented style pursuing enjoyment, public and society interest-oriented style pursuing public purpose, and culture-oriented style pursuing artistic value of documentaries in order. It could be inferred from the classification of preference styles that unlike the past, the choice of TV broadcasting of audiences was shifting from the passive and media-dependent form to positive form. Therefor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ntent delivery and production in the multi-media and multi-channel digital broadcasting era should be focused on not only the content itself but also an audience-centered service development model reflecting audiences' desire and hope.

■ keyword : | Documentary | Audiences | Subjectivity | Q Methodology |

* 본 연구는 2009년도 목원대학교 신입교원정착 연구지원사업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110826-002

접수일자 : 2011년 08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9월 29일

교신저자 : 현승훈, e-mail : andredart@mokwon.ac.kr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다 매체, 다 채널 시대에 매체 생산과 소비는 과거 독과점 시대의 단일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에 의한 다양한 미디어 융합을 통해 수용자의 근본적 관점까지도 바꾸어 놓게 되었다[1]. 이러한 시대에 수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열망은 이제 유희적 만족을 넘어 직접 참여하려는 능동적 참여의 형태로써 표출되게 된다. 이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매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변화의 흐름이다. 그러므로 수용자들은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나아가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에 직간접적인 주체로 재편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결국 다매체 디지털 환경 하에서 수용자가 추구하는 것은 변화의 요구에 흐름에 맞추어진 콘텐츠 그 자체이며 이는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선호도가 매우 중요한 시청행위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2].

특히 특정 내용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다채널 상황에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특정 장르만을 찾아다니며 집중적인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장르선호도는 프로그램 선택에서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3-5]. 다시 말해 디지털시대의 수용자의 특성은 단일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의 구조와 다르게 일방적이며 절대적인 구조의 수용형태를 갖기 보다는 콘텐츠 선택을 위한 경험적 정보나 혹은 취향에 따라 장르를 취사선택하게 되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1].

따라서 매체 환경에 대한 구조적 연구방법과 함께 수용자에 대한 취향 혹은 상품 소비의 미시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다매체시대의 수용이론에 대한 조금 더 확장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각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수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주관적 특성과 집단적 차원의 취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 수용자 유형의 변화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TV 다큐멘터리 장르 선호도에 관

한 수용자의 주관성과 그 속에 나타나는 공통된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조사된 영화 관람 패턴과 TV 다큐멘터리의 선호도와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것은 앞으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변화하는 수용자의 선호도와 매체 선택의 유형을 연구하는 데에 보다 확장된 논의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TV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선호 유형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2. 매체 선택의 능동성에 따른 취향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3. 수용자의 주관적 특성에 관한 연구방법의 제약은 무엇인가?

II. TV관람 유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TV관람 유형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져 매체선택과 이용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왔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은 '효용성과 욕구충족'에 대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보편화된 수용자 결정요인들을 강조하는 연구이고[6], 두 번째 관점은 시청자 접근성과 프로그램 편성시간과 같은 매체 구조적 특성들이 수용자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연구하는 구조, 환경적 결정요인 분석방법이다[7].

TV관람에 따른 수용자의 분석에 관해 연구의 틀을 세운 이 양대 이론적 방법론은 수용자들이 TV를 이용하는 방식에 관한 근본적 전제를 달리하며 최대한의 효율적인 연구결과물 들을 생산해 내려한다. 먼저 효용성과 욕구충족에 관한 연구는 수용자의 매체선택을 능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동기, 개인 특성, 선호도 차이가 미디어 행태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제안하고 있다[8]. 이러한 연구들은 TV를 시청할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특히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 유형 선호에 있어서 상당한 정

도의 수용자의 주관적 개입과 관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9].

이에 반해 TV 혹은 여타매체에의 접근성, 유료 다중 채널 서비스의 이용 의사 혹은 이용 능력, 그리고 프로그램 시간표 요인과 같은 구조 혹은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매체 외부의 요인들을 연구에 포함함으로써 거시적 차원의 수용자 행태에 일관된 패턴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10]. 이 접근방식에 의한 연구결과들은 대개 매체 수용자들의 행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객관적 분석에 근거한 설명력과 이에 따른 활용가치를 보여 주기는 하지만, TV 선택의 주관성 혹은 개인적 동기와 같은 매체 혹은 프로그램 선택의 근원적 이유는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 못하는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

매체사용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방향성은 잠재적 그 수용자가 매체 이용 결정에 있어서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를 둘러싼 인식론적인 쟁점을 형성하게 된다.

구조, 환경적 요인의 연구는 수용자의 개별적 요인의 연구에 비해 근본적으로 TV시청 선택에 있어서 더욱 수동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의 가장 큰 틀은 수용자들의 수용 여부 결정을 대체로 수동적인 것으로[2] 혹은 수용자와 매체 간의 관계 자체로 개념화려는 노력을 보이려 한다. 그러므로 무엇을 시청할 것인가의 선택은 여전히 프로그램 시간표 및 선택가능 콘텐츠에 대한 정보보유 여부라는 요인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능동적 시청자 이론에 속하는 연구자들은 대체로 구조, 환경적 요인의 연구에 비하여 TV 선택 및 콘텐츠 결정에 있어서 시청자의 의지의 능동성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중에서도 일부 연구들은 TV 시청여부 결정에서보다 콘텐츠 선택에서 시청자들의 더 많은 개입과 활동이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개인적 요인 학파는 '원인의 원천에 직접' 다가가서 시청자의 TV 시청동기와 특정 콘텐츠 시청동기를 판단하는 반면, 구조학파는 거의 전적으로 이차자료(예: Nielsen 시청률 순위)의 분석에 의존하여 시청 행태의 보다 더 큰 패턴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양쪽의 연구 접근방법이 TV 시청결정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수용자의 개별적 요인에 접근하는 연구방법이 매체 선택행위가 시청의 제약요인들과 구조, 환경적 영향들에 의하여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구조, 환경적 요인 분석의 연구들도 수용자가 때로는 자신의 선호 의지대로 TV 시청을 지목하여 적극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면도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요인과 구조, 환경적 요인을 동일한 분석 수준에 놓고 나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측정수단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며, 새로운 연구 방법에 대한 그 기본틀은 매체 자체에 대한 거시적 구조분석과 함께 개별 수용자의 주관성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접근 연구방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11].

III.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1. 주관성 연구로서의 Q방법론

디지털 시대에 TV 프로그램 선택이 대부분 수용자의 주관적 판단 내지는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16] 방송 다큐멘터리 선택에 관한 수용자 취향을 고찰하는 본 연구는 주관성연구의 방법론 중 하나인 Q 방법론을 방법론으로써 사용하였다. Q 방법론은 심리학자이자 매스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창안되었다. 인간은 특수한 의미와 적합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하고는 인간의 본질과 사회현상을 탐구할 수 없다는 것이 Q 방법론의 기본 논리이다. 따라서 Q 방법론은 한 개인 내의 의미성에 관심을 갖고, 인간의 주관적 속성인 선호, 감정, 이상, 아름다움, 취향 등을 다루게 된다.

인간의 주관성은 보편성보다는 개별성과 독특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떤 대상이든 진술은 다양하고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진술들은 통합체의 개념안으로 기본적 요소가 되어 Q 방법론으로 흡수되게 된다. 이와 같은 Q 방법론의 진술들은 자아 관여적, 자아 반영적, 자아 정당화, 자아부정 등 다양한 범주로 분류되어지며,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속성은 모두 자아지시적인 것을 포함하게 된다[12]. 따라서 Q 방법론의 특징은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아지시적 성격이 강한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 방법이라는 데 있고 분석의 기본 단위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계량적 방법론과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Q 방법론은 연구자의 가정이 아니라 행위자의 관점에서부터 그 분석이 시작되고 방법론에 사용되는 진술문은 모두 응답자의 자아참조적(self-referent)의견 항목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12].

결국 Q 방법론을 이용한 접근은 변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보다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밝히는데 유용하게 되며[13], 각 변인들의 주관성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의 유사성에 따라 사람들을 묶어주기 때문에 개인 혹은 집단의 선호도 혹은 취향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적 세분화에 매우 적합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14].

2. 연구설계

2.1 Q 표본

본 연구에서 사용한 Q 표본은 관객의 TV 다큐멘터리 장르수용과 선호도에 관한 진술문이다. 우선 온라인과 방송관련 논문 그리고 TV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저널들을 통해 60여 개 진술문으로 Q 모집단(Q-Population)을 수집하였고, 그 중에서 기타 중복성 있는 진술문과 관련성이 적은 진술문을 제거하고 총 20개의 최종 샘플을 추출해 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선정성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 비구조화된 Q-표본을 사용하였다. 비구조화된 표본(unstructured Q-sample)은 사람들의 유형을 찾아내고 기술하며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연구자가 어떤 이론적 아이디어를 가정할 수 없을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12].

2.2 P 표본

Q 방법론은 많은 샘플을 요하지 않는다.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

이므로[12] P샘플의 수가 많을 필요는 없다. 본 연구에서 TV시청 빈도가 높은 20, 30대 젊은 남녀 53명(남성 28명, 여성 25명)을 대상으로 P 표본을 선정하였다.

2.3 Q 분류 및 자료처리

표본의 분포 모양은 강제정규분포(forced normal distribution)로서 [그림 1]과 같이 가장 긍정(+3)에서 가장 부정(-3)까지 배열하였다. 총 53명의 P 표본에게 20개의 TV 다큐멘터리에 관한 진술문이 적힌 Q카드를 주고 분류하도록 하여 본인이 가장 긍정하는 질문을 오른쪽 (+3)에 그리고 가장 부정하는 질문을 왼쪽(-3)에 그리고 부정도 긍정도 아닌 중간적인 것을 가운데로 구분하였으며, 양 끝에 있는 4개(+3 카드 2개, -3 카드 2개)의 진술문에 대해서는 분포시킨 이유를 인터뷰(능동적 접근 매체인 영화 관람에 대한 추가적 인터뷰)를 통하여 기록하게 함으로써 Q 유형의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부정		중립				긍정	
-3	-2	-1	0	+1	+2	+3	
2개						2개	
		3개	3개		3개	3개	
			4개				

그림 1. Q Sorting 분포도

본 조사에서는 각 진술문에 대한 응답자들이 어느 수준의 인식 중요도를 갖고 있고 이에 따른 유형이 어떠한지를 찾아내기 위하여 자신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지 않은 것은 -3점을 가장 일치하는 것은 +3점에 분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IV. 분석결과

Q 방법론의 연구설계에 따라 총 20개의 방송다큐멘터리 선호도에 관련된 진술문을 가지고 53명의 사람들

에게 행한 Q-sort를 Quanl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유형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P 표본 중 1유형 10명, 2유형 16명, 3유형 9명 등 35명이 유형화 되었으며, 나머지 18명은 애매한 태도를 보여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았다. 3개의 유형이 갖는 설명력은 총 36.8%이다. Q 방법론의 근본 목적이 설명력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통상 25% 이상이면 분석결과와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15] 본 연구결과는 충분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각 유형의 특징과 함께, 유형별 차이점과 공통점을 아래에 기술 하였다. Quanl 프로그램은 주인자분석(Principal components factor matrix)을 행하고, 회전은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시행하였다.

표 1. 유형별 인자의 설명변량

유형	변량	백분율	누적율
1	12.1277	22.8	22.8
2	4.0743	7.7	30.5
3	3.33426	6.3	36.8

표 2. 유형별 적재치

유형 1 (N=10)		유형 2 (N=16)		유형 3 (N=9)	
변인	적재치	변인	적재치	변인	적재치
		4	1.1517		
		7	1.1411		
		14	.1062		
6	.2133	18	.4618	2	.7516
11	1.0581	21	.7464	3	.4015
17	.8143	23	2.2673	8	.4692
24	.7857	25	2.2854	9	1.8314
28	.3981	26	.6877	10	.8368
31	.2989	32	.6702	22	1.4561
41	.5163	34	.9758	33	.7632
43	.6833	36	.6617	37	1.0353
44	.0503	40	.8526	39	.8725
52	.2754	42	.8107		
		46	1.0231		
		48	.3160		
		50	.7061		

1. 유형별 분석 결과

1.1 제 1유형: 오락적 가치 추구형

이 유형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0%와 30%로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재미와 오락적 취향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주로 정보나 공익성보다는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야기 형식이나, 혹은 취미, 여가선용 등의 유희적 가치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성과 객관성에 대한 추구 보다는 약간의 과장이 있더라도 감동과 재미가 있는 내러티브형 다큐멘터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화관람 패턴과 장르 선호 취향에 대한 추가적 질문을 통해서는 영화관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60%로 인터넷 20%나 케이블 혹은 DVD 각각 10%를 통해 접하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또한 선호하는 영화의 장르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 3. 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오락추구형

진술문	표준점수
9 연출에 의해 조작된 이야기라도 재미있으면 된다.	2.02
1 다른 프로그램보다 유익하기 때문에 시청한다.	1.24
18 만약 다큐를 보게 된다면 여행다큐를 볼 것이다.	1.15
14 만약 다큐를 보게 된다면 휴먼다큐를 볼 것이다.	1.07
20 다큐 정보는 광고 혹은 예고편을 통해 접한다.	1.03
4 여러 TV채널을 보던 습관 때문에 시청한다.	-1.02
17 만약 다큐를 보게 된다면 시사다큐를 볼 것이다.	-1.07
10 현재 방영된 다큐멘터리의 내용 대부분을 신뢰한다.	-1.40
5 주변의 권유로 보기 때문에 시청한다.	-1.70

1.2 제 2유형: 공익, 사회적 가치 추구형

남성과 여성의 선호 비율은 56%와 44%로서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이 유형은 재미 보다는 공익 혹은 사회적 가치 요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류이다. 주로 사실에 기반한 휴먼다큐멘터리 혹은 교육용 다큐멘터리를 선호하며, 조작이나 오락적 요소를 강하게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정서적 순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 유형은 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방송매체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영화를 접하는 경로에 관한 추가적 질문에 있어서는 영화관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56%로 인터넷 38%이나 케이블 6% 혹은 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었고 선호하는 영화의 장르에 대해서는 다양한 장르에 있어 고르게 분포되어 특별히 선호하는 장르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표 4. 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공익성 추구형

진술문	표준점수
1 다른 프로그램보다 유익하기 때문에 시청한다.	1.87
13 사실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시청한다.	1.63
10 현재 방영되는 다큐멘터리의 내용 대부분을 신뢰한다.	1.50
12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시청한다.	1.31
14 만약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다면 휴먼다큐를 볼 것이다.	1.03
7 기분전환을 위해서 시청한다.	-1.03
9 연출에 의해 조작된 이야기라도 재미있으면 된다.	-1.42
2 오락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청한다.	-1.79

1.3 제 3유형: 문화, 예술적 가치 추구형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0%와 50%로서 동등한 비율로 나타난 이 유형은 수용자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다큐멘터리를 선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변의 소문이나 권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다큐멘터리 선택취향이 명확히 존재하는 유형이다. 이 부류는 2유형과 유사하게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의 다큐멘터리의 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선호에 대한 가치기준에 있어서 2유형의 공익 사회적 측면이 아닌 문화, 예술적 가치를 통한 정서순화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영화를 접하는 경로는 인터넷을 통한 관람이 50%로 영화관 21.4%이나 케이블 21.4% 혹은 DVD 등 기타매체를 통한 관람 7.2% 보다 높게 나타났고, 선호하는 영화 장르에 있어서는 주로 장르적 형식이 뚜렷한 액션 44.4% 멜로드라마 22.2% 그리고 코미디 영화가 22.2%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능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문화, 예술적 가치 추구형

진술문	표준점수
8 예술적 가치 때문에 시청한다.	1.99
12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시청한다.	1.03
1 다른 프로그램보다 유익하기 때문에 시청한다.	1.01
14 만약 다큐를 보게 된다면 휴먼다큐를 볼 것이다.	1.01
5 주변의 권유로 보기 때문에 시청한다.	-1.63
9 연출에 의해 조작된 이야기라도 재미있으면 된다.	-1.63
4 여러 TV채널을 보던 습관 때문에 시청한다.	-1.89

2. 유형별 차이점과 공통점

2.1 제 1유형과 제 2유형의 차이점과 공통점

두 유형간의 차이는 다큐멘터리의 진실성과 신뢰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이는 “다큐멘터리를 수용자의 입장에서, 진실성이 결여되더라도 오락적인 측면이 강하면 된다”라고 보는 1유형과, “다큐멘터리의 목적이 집단 혹은 사회적 측면에서 공익성에 있다”라는 2유형간의 차이이다. 따라서 기분전환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도구로써 다큐멘터리의 유희적 가치를 강조하는 1유형은 장르에 구분 없이 재미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완성도 있는 이야기형식의 다큐멘터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2유형은 이야기의 구성적 측면 보다는 교육적 혹은 사회적 규범을 중요시 여기면서 현재 방송매체의 공익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반해 두 유형 모두 관람에 있어서 수동적 형태 보다는 능동적 형태(-1.0/-0.8)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화관람 경로에 대한 추가적 질문에서 또한 영화관을 통한 관람 비율이 다른 매체(인터넷, 케이블, 혹은 DVD)를 통한 관람비율 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6. 1유형과 2유형의 진술에 있어 차이점과 공통점

진술문	1유형	2유형	차이/공통
9 연출에 의해 조작된 이야기라도 재미있으면 된다.	2.018	-1.420	3.439
18 만약 다큐를 보게 된다면 여행다큐를 볼 것이다.	1.152	-0.312	1.464
20 다큐 정보는 광고 혹은 예고편을 통해 접한다.	1.030	-0.213	1.243
7 기분전환을 위해서 시청한다.	-0.54	-1.029	0.975
14 만약 다큐를 보게 된다면 휴먼다큐를 볼 것이다.	1.068	1.030	0.038
15 만약 다큐를 보게 된다면 자연다큐를 볼 것이다.	0.072	0.266	-0.195
4 여러 TV채널을 보던 습관 때문에 시청한다.	-1.020	-0.778	-0.242
13 사실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시청한다.	0.215	1.628	-1.413
5 주변의 권유로 보기 때문에 시청한다.	-1.699	-0.236	-1.463
10 현재 방영되는 다큐멘터리의 내용 대부분을 신뢰한다.	-1.404	1.497	-2.901

2.2 제 1유형과 제 3유형의 차이점과 공통점

오락적 가치를 중시하는 1유형과, 문화,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는 3유형은 작품자체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1유형에 비해 3유형은 다큐멘터리의 예술적인 면과 함께 화려한 영상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방영되는 다큐멘터리와 매체에 대한 신뢰도의 측면에서 1유형은 부정적 견해를 보인데 반해 3유형은 다소 유포적인 태도를 보이며 매체보다는 오히려 작품의 질적 가치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영화장르 선호유형에 대한 추가적 질문에서 1유형과 다르게 3유형은 뚜렷하게 자신만이 선호하는 장르가 존재함으로써 장르구분에 대한 작품의 기준이 명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두 유형 모두 주변의 권유보다는 자신이 직접 능동적으로 다큐멘터를 선택하는 입장(-1.7/-1.7)을 보이고 있고, 기존의 다른 TV 프로그램 장르에 대한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두 유형 모두 유포적인 태도(-0.6/-0.5)를 취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6. 1유형과 3유형의 진술에 있어 차이점과 공통점

진술문	1유형	3유형	차이/공통
9 연출에 의해 조작된 이야기라도 재미있으면 된다.	2.018	-1.631	3.649
4 여러 TV채널을 보던 습관 때문에 시청한다.	-1.020	-1.889	0.869
18 만약 다큐를 보게 된다면 여행다큐를 볼 것이다.	1.152	1.010	0.142
5 주변의 권유로 보기 때문에 시청한다.	-1.699	-1.629	-0.070
6 예능이나 드라마에 실증을 느꼈기 때문에 시청한다.	-0.640	-0.498	-0.143
17 만약 다큐를 보게 된다면 시사다큐를 볼 것이다.	-1.065	-0.063	-1.003
10 현재 방영되는 다큐멘터리의 내용 대부분을 신뢰한다.	-1.404	0.021	-1.425
8 예술적 가치 때문에 시청한다.	0.366	1.995	-1.629
3 화려하고 세련된 영상미 때문에 시청한다.	-1.416	0.521	-1.936

2.3 제 2유형과 제 3유형의 차이점과 공통점

2유형과 3유형의 차이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한 진실성과 그 작품이 방영되는 매체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유형의 경우 진실성과 매체 신뢰도에 대해 강한 긍정의 견해를 보이며 방

송매체 접근의 빈도가 높은 반면 3유형은 순수한 작품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그럴듯한 이야기로 채포장된 다큐멘터리(-1.4/-1.6)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함께 인간의 정서를 자극하는 작품에 대한 선호도(1.0/0.9)의 측면에서는 두 유형 모두 강한 일치감을 보이고 있다.

표 6. 2유형과 3유형의 진술에 있어 차이점과 공통점

진술문	2유형	3유형	차이/공통
13 사실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시청한다.	1.628	-0.324	1.952
10 현재 방영되는 다큐멘터리의 내용 대부분을 신뢰한다.	1.497	0.021	1.476
5 주변의 권유로 보기 때문에 시청한다.	-0.236	-1.629	1.393
4 여러 TV채널을 보던 습관 때문에 시청한다.	-0.778	-1.889	1.112
19 만약 다큐를 보게 된다면 역사다큐를 볼 것이다.	0.692	-0.333	1.025
9 연출에 의해 조작된 이야기라도 재미있으면 된다.	-1.420	-1.631	0.211
14 만약 다큐를 보게 된다면 휴먼다큐를 볼 것이다.	1.030	0.882	0.148
20 다큐 정보는 광고 혹은 예고편을 통해 접한다.	-0.213	0.790	-1.003
3 화려하고 세련된 영상미 때문에 시청한다.	-0.594	0.521	-1.114
18 만약 다큐를 보게 된다면 여행다큐를 볼 것이다.	-0.312	1.01	-1.322
8 예술적 가치 때문에 시청한다.	0.104	1.995	-1.890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선호도와 이에 따른 수용자들의 주관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한 연구결과 TV 다큐멘터리 장르 수용자들의 주관적 특징에 관한 분류의 유형이 다음과 같이 총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먼저 즐거움과 재미를 지향하는 오락적 가치 추구형, 그리고 공익성을 지향하는 공익, 사회적 가치 추구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의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 예술적 가치 추구형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3개의 분류 유형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다큐멘터리 작품 수용에 있어서 모두 능동적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1유형의 경우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에 대한 능동성

을 보이고 있고 2유형의 경우 공익, 사회적 가치에 대한 능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3유형의 경우 문화, 예술적 가치에 대한 강한 능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들의 특성으로써 구체적 유형을 다시 분석해보면, 먼저 오락적 가치 추구형은 합리적, 이성적 측면에서의 이해나 설득을 요하는 다큐멘터리 보다는 감성적 측면에 호소하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미, 흥행적 요소, 혹은 이야기 면에 있어서 완성도가 있는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드러내 보였다. 또한 이 유형은 장르선호에 대한 균질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관람 행태에 있어서 주변의 권유보다는 입소문이나 유행의 흐름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경험요소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이는 특별한 장르에 대한 선호 기준은 약하지만 한 개인의 유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체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공익, 사회적 가치 추구형은 TV다큐멘터리의 공적인 존재의의를 존중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공익성을 가진 방송프로그램의 다큐멘터리적 존재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유형은 오락과 같은 유희적 목적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성적 판단 혹은 사회적 가치 규범을 중요시 하는 교육 목적의 다큐멘터리나 혹은 정서적 순화를 위한 휴머니즘적 다큐멘터리의 선호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 예술적 가치 추구형은 매체 수용에 대한 능동성이 가장 강한 유형이다. 다큐멘터리를 하나의 작품적 가치로써 추구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이 부류에 속하는 수용자는 상당히 자기 주관적 요소가 강하며 스스로 장르 선택의 취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즐거움 보다는 수용자 스스로의 기준에 의한 작품, 그 자체의 존재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이와 같은 유형의 종합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프로그램 시청 행위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변화된 매체의 수용과정에 있어 발생된 개인적 경험과 이에 따른 선호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결국 “매체의 변화가 수용자에게 깊이 있는 탐색형 시

청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귀결될 수 있었다. 이는 다채널 시대에 방송 수용형태가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용자 취향대로 그 선호도가 유형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 취향의 유형화를 통해 디지털시대의 방송프로그램이 그 동안 기본적으로 접근 유형이 다르다고만 생각해 왔던 영화의 장르선택 취향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영화장르의 선택에 있어서 일차적 관객의 판단 기준은 오락과 예술의 구분에 대한 경험적가치가 평가의 중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를 통해 방송 다큐멘터리의 선택 기준에 있어서 수용자경험의 절대가치가 프로그램 선택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새로운 매체 수용에 대한 태도가 이전의 방송 수용행태와는 다르게 나이, 성별, 혹은 직업과 시대에 따라 명확하게 세분화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다큐멘터리 장르에 대한 수용자의 기대, 만족도, 신념, 그리고 태도 등의 주관성 구조 유형을 Q 방법론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방법으로써 본 연구의 한계성 또한 보여주었다.

매체 수용자의 행태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한 개념이다. 즉 이는 수용자의 행동이나 활동 수준은 의사소통과정에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인은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TV매체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 주위에 있어서 접근가능하다는 이유나 혹은 습관적으로 선택하면서, 환경에 따라 수동적인 행태와 능동적인 행태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화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또한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지는 수용자의 주관적 특성이 전반적으로 매체에 대해 능동적 관람 행태를 취하고는 있었지만, 유형화되지 못한 나머지 부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서는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수용자의 개인적 요인과 구조, 환경적 요인 모두, TV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적연구와 함께 수용자의 의식에 관한

연구를 고찰해 본다면 앞으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참고 문헌

[1] 김유화,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관한 수용자 인식 연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 J. G. Webster and J. J. Wakshlag, “A theory of television program choice,” *Communication Research*, Vol.10, No.4, pp.430-446, 1983.

[3] 심미선, “융합매체환경 하에서의 장르이용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 연구*, 통권 제65호, pp175-220, 2007.

[4] J. W. Jeffres, D. Atkin, and K. Neuendorf, “The impact of new and traditional media on college student leisure preferences,” *World Communication*, Vol.24, No.2, pp67-73, 1995.

[5] G. J. Webster, “Audience behavior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Vol.36, pp77-91, 1986.

[6] J. Cohen, “Television viewing preferences: Programs, schedules, and the structure of viewing choices made by Israeli adult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6, No.2, pp.204-221, 2002.

[7] M. Barrett, “The relationship of network affiliation change to prime time program rating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3, No.1, pp.98-109, 1999.

[8] D. A.erguson and E. M. Perse, “The World Wide as a functional alternative to televis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4, No.2, pp.155-174, 2000.

[9] A. B. Albarran and D. Umphrey, “An examination of television motivations and program preferences by Hispanics, nacks, and whit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37, No.1, pp.95-103, 1993.

[10] R. Cooper, “An expanded, integrated model for determining audience exposure to televis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37, No.4, pp.401-418, 1993.

[11] R. Cooper and T. Tang, “Predicting Audience Exposure to Television in Today’s Media Environment: An Empirical Integration of Active-Audience and Structural Theori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53, No.3, pp.401-408, 2009.

[12] 김홍규,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1992.

[13] 김혜성, “대학생의 광고인식 유형에 대한 Q 방법론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4호, pp170-207, 2009.

[14] 김홍규, “Q 방법론의 유용성 연구”, *주관성연구*, 한국주관성연구학회, 통권 제1호, pp15-33, 1996.

[15] 김홍규, *Q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16] 김승환, “TV 뉴스 콘텐츠의 채널 선택 유형에 따른 수용자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6호, pp99-106, 2007.

저자 소개

현 승 훈(Seung-Hoon Hyun)

종신회원



- 2001년 8월 :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영화진흥공(문학석사)
- 2007년 2월 : The University of Sydney(Master of Film and Digital Images)
- 2009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영화영상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다큐멘터리, 영화장르, Q방법론